

“女선생님 안 무섭다” 덩치커진 사춘기 ‘폭력 충동’



꿈 잡아먹는 교실의 공포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중학교에서 가장 심각하다. 발생 빈도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3배를 넘어 중학교가 학교폭력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3월~8월) 광주지역 학교폭력 가담 학생 1139명 가운데 66.4%인 756명이 중학생이

광주 여교사 비율 70%

전체 학폭 60%가 중학생

남교사 확대 개선 시급

었다. 이는 광주지역 전체 중학생 대비 가해학생 비율이 1.13%로, 1만명당 113명이 폭력에 가담한 셈이다.

또 광주에 중학교가 86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학교에 9명, 3개 학급 당 1명 꼴로 가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가담은 전국적으로 대구(1.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유독 심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목표를 상실한 중학교 교육제도를 꼽고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의 무책임, 학생의 무목적, 교사의 무관심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또래와 사귀며 공부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 취업이란 뚜렷한 목표가 있어 학생들의 이탈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 발육은 왕성하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해 반에 반에 입시 등 눈 앞의 목표는 없어 탈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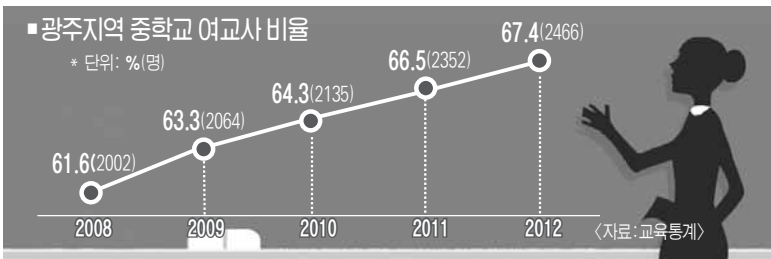
중학교의 여(女)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증가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몸집이 커지고 충동적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여교사와 기간제교사는

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지난 2008년 61.6%(2002명)에서 2009년 63.3%(2064명), 2010년 64.3%(2135명), 2011년 66.5%(2352명), 지난해 67.4%(2466명)로 최근 5년 사이에 5.8%포인트(464명) 높아졌다.

여교사가 크게 늘면서 담임도 여교사 비중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여교사들이 몸집이 커진 남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중학교 한 교감은 “신체 조건이 훨씬 좋은 일부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고등학교 남교사들 중학교로 보내는 등 교육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의 증가도 문제다. 지난해 광주지역 중학교 기간제 교사는 총 547명으로 이 중 307명이 담임을 맡았다. 이는 전체 담임교사 2050명 중 14.9%에 해당하며, 담임교사 7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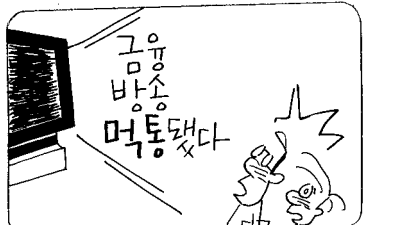
기간제교사는 신분이 불안정하

다 기간이 짧아 학생 생활지도 등 담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규심 전교조 광주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간제 교사는 단기간 불안정하게 근무하는 만큼 정규 교원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학교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원침 (8779) 김종두



웰빙식품 판매 붐 장날

광주YWCA 봄 장날이 21일 광주시 북구 유동 회관 1층에서 열렸다. 22일까지 계속되는 장터에는 향토식품과 젓갈류, 유정란, 잡곡, 불나물 등 웰빙식품이 판매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게임 중독이 작은아버지 살해 불렀다

친인척에 흥기 휘둘른 10대

초등때부터 하루 6시간 몰두

친척들에게 흥기를 휘둘러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10대가 초등학교 때부터 잔혹한 게임에 빠져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졸업 후에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몬스터’ 등 게임에만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정종근)는 21일 지난 3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할아버지(75) 집에서

가족모임 후 잠을 자고 있던 친척들에게 흥기를 휘둘러 작은 아버지(44)를 살해하고 나머지 7명에게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가한 김모(19)군을 살인,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군은 김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5~6시간씩 폭력성 높은 인터넷 게임을 즐겼고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흥기를 구입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자신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표창 모양의 칼 3개, 등산용 칼 3개, 도끼 등을 구입, 사실상 이 때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연히 사건 당일 가족 모임에 참석한 뒤 귀가해 자신의 사진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광주천변에 버리고 도주까지 파악해놓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뢰로, 주변에 친구나 선배가 전혀 없었으며 사소한 문제에도 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가족들의 증언”이라며 “살인을 저지른만한(다른)사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족들이 보복 범행을 우려하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해 광주보호관찰소의 조사를 의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

50대 조선족 떨어져 숨져

21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보조하던 조선족 허모(51)씨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허씨가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돕던 중 공중에 매달려있는 줄을 걸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천식·간염 특효약 둔갑 ‘एं터리 효소 식품’

4억 쟁건 80대 검거

발효된 효소를 만든 엔터리 식품을 천식·간염 등의 특효약이라고 판매해온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자연 식품과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효소를 각종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임모(8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광주시 서구 유동동 자신의 집에서 호박, 수세미, 매실 등과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환약과 물약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팔아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천식, 간염,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임씨의 말에 현혹돼 500g 한봉에 4만원을 주고 물약과 환약을 구입한 환자들만 전국에 1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곰팡이가 피어 먹

을 수 없다는 환자에게 ‘발효가 더 잘된 것’이라고 하는 등 전문 지식과 허가 없이 건강 보조식품이라며 판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씨에게 산 약을 먹고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킨 이모(여·53)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정확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놓은 상태”라며 “현재까지 인체의 유해성 여부 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이홍하-檢 직원 유착 의혹 조사

순천지청, 뇌물 받은 교과부 직원 구속

검찰이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사학설립자 이홍하씨와 검찰 직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검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검찰 직원과 사학 설립자 이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의 출석 및 진술거부, 보석 허가 등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로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이날 광주고법 제1형

목포서 고교생 투신 숨져

21일 오후 1시50분께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화재에서 A(16·목포 모 고 2년)군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신을 중인 것을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 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목격자는 경찰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A군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A군이 이성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에 남긴 점과 여자친구 문제로 괴로워했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낮술 심했다” 생일파티중 풍덩

○...술에 취해 선착장 아래로 떨어진 아내를 구하려 남편이 바다가 뛰어 들었다가 부부가 함께 허우적거리던 것을 목포해경 구조대가 5분 만에 구조.

○...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목포시 북항 한 횡집에서 점심에 남편과 생일 식사를 한 A(57)씨가 활어위판장 선착장에서 술을 깨기 위해 바람을 쐬던중,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다는 것.

○...A씨가 바다에 빠지자 남편이 곧바로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구하지 못하고 함께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가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인다라 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사협회 의료원고성빌딩 제120106-층-0619호 (광곡) **광주점 062-368-5075**

www.indara.co.kr 광주은행 6층(신세계대점사거리)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짝하고 눈물이 이쁘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얼굴기가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15일간 백두산악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악 무등산점 062-236-1187

BRANDU

ARC'TERYX mello's patagonia